

말씀으로 삽니다

We Live By God's Word

요한복음 15:5-1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1월 13일 설교

⁵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⁶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⁷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⁸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¹⁰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¹¹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¹²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과 기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신하였다가 나중에 이집트 왕이 된 프톨레마이오스 일세는 기하학을 창시한 수학자 에우클레이데스의 후원자였습니다. 에우클레이데스에게 기하학을 직접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 좀 쉽게 배울 수 없느냐 물었더니 에우클레이데스가 뭐라 대답했다고요? “임금님,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하학은 누구나 똑같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저께 한국에서는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치르고 이제 논술고산가 뭐가 또 보는 모양입니다. 시험 종류나 지원하는 방식은 제가 대학에 갈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무리 바뀌어도 공부 잘 하는 방법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공부 잘 하는 방법,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지요? 예, 예수와 복습입니다. 예수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과외는 하지 말고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면 수석도 할 수 있지요. 머리가 좋으면 남보다 좀 쉬울 수도 있지만 공부에는 에우클레이데스 때나 지금이나 남보다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 이른 바 왕도라는 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복습 그게 바로 왕도라는 말이 되겠지요.

자, 학교에서는 예수, 복습입니다. 교회에서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 신앙생활의 왕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 복습 안 하고 공부 잘 할 수가 없듯이 말씀생활, 기도생활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대로 사는 게 뭡니까? 영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둘 가운데 오늘 말씀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살펴보고 지금 나는 말씀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 예수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이렇게 둘인데 둘이 하나가 됩니다. 신비, 미스터리입니다.

먼 옛날 그런 신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 혼자는 안 좋아 하나를 더 만드셨는데 그 사람 몸을 일부 떼 내어 만드셨습니다. 남자한테서 여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습니다. 둘이지만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 사람은 다 태어나니까 남자도 여자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한테서 나오고 또 남자는 여자한테서 나오니 둘이 같아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도 성경은 같은 신비라고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건 참 신비로운 일이다” 해 놓고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가 바로 그렇다” 했습니다 (엡 5:31-32).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거나 예수님이 우리 몸에서 나오신다는 말은 물론 아니지만 그것하고 비슷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은 우선 주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로 붙어 있다 하시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수학에서 말하는 포함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내가 저 안에”라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포함되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포함되시면 무슨 관계가 됩니까? 합동이지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나무에 있으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부러지거나 잘려 나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가지가 살았다는 건 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은혜지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일 4:10).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요 15:16). 그냥 눈 떠 보니 주님 품입니다. 전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가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거듭난다”고 합니다. 몸의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 곧 영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먼저 하나님 안에 있던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마 3:17; 17:5; 요 3:35; 5:20). 그래서 예수께서도 늘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요 17:23-24).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바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주 예수의 사랑 안에 있게 된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순간 우리는 주 예수 안에 들어와 주 예수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말씀을 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벧전 1:23).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주 예수를 전하는 말씀을 못 듣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롬 10:17)?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자마자 구세주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계속 보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 주시고 또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지난 죄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엡 5:25; 요 15:3).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면서 동시에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막 태어난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젖입니다 (고전 3:2; 히 5:12-13). 자란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도 역시 말씀입니다 (히 5:13-14).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일깨워주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곧 주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 8:31).

말씀이 내 안에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또 내 속에 오실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둘 다 사랑이고 둘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짝사랑은 안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놀라운 것이어서 받기만 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 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강요한다면 사랑이 아니겠지요. 너무 놀랍고 강력한 사랑이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 감격해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떻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므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안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결국 시작도 사랑이고 결론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시작도 말씀 결론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하나가 되면

자,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든든히 달라붙어 있으니 물도 영양분도 충분이 공급을 받겠지요. 그러니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당연하지요. 열매는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대표적이겠고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열매겠지만 핵심은 언제나 사랑, 곧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둘째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내가 찰떡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생각도 같고 바라는 것도 같습니다. 내 마음이 곧 주님 마음이고 내가 바라는 걸 주님도 바라시니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셋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매도 많이 맺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으면 (요 15:16) 그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포도원 농부가 가지를 정성으로 돌보아주니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농부의 영광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첫째지요. 그런 다음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명도 말씀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열심히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필요한 것마다 간구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이거 말고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조차 주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니 우리 믿음생활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삶, 곧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으로 삽니다”로 붙였습니다. 산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게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 역시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내가 순종할 계명의 말씀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로 붙어 있어야 이 목숨이 유지가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산다는 말에는 또 앞날을 바라보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다시 살 건데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먹는 게 바로 주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 6:68).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주 예수도 모르고 주 예수 안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다면 그건 부러졌거나 잘렸다는 뜻이겠지요? 나무와 분리되어 있으니 죽은 겁니다. 죽은 가지는 마르겠지요. 마르면 뭘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감이 모자라 불태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받게 될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을 소개할 때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 했습니다 (마 3:12). 주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마지막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 13:30).

누가 쭉정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주님이 직접 풀어 주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마 13:41).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사람, 쉽게 말해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과 생명

말씀은 우리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씀에 달렸습니다 (딤후 4:1-5). 학교에서 예습 복습이 중요하지만 그건 잘 안 해도 낙제하면 그만이지요. 낙제한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살 길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말씀이 아니면 큰일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주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기에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주일 교회 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친교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친교도 밥 아닌 말씀이 중심입니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나옵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한두 번 못 나오게 되면 교회가 그리워지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산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딱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안 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기 싫어 그렇습니다. 생존본능입니다. 밥 굶은 사람이 밥 찾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장사라도 밥 안 먹으면 약해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 하면 나도 약해지고 더 멀리하면 죽습니다. 모태신앙 아니라 평생을 교회에서만 살아온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험악하고 곡절이 많은 이 세상,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도 날 사랑하시는지 희미해집니다. 주 예수의 제자로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말씀이 아니면 내 삶도 금방 흐리멍덩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됩니다. 열매도 안 맺히고 기도해도 답이 없습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주님 안에 있는 가지라도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 버린다 하셨습니다.

내 코가 석 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김일성이 갑자기 정권을 잡고 성경을 못 보게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숨겨 놓고 몰래 읽었습니다. 읽다가 들키면 몸이 괴롭고 혹 죽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영혼이 괴롭고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줄 아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과격한 방법은 잘 안 씁니다. 그냥 한 두 번 교회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몇 달 나중에는 몇 해 동안 교회를 등지게 만듭니다. 성경도 처음에는 가끔 펼쳐 보게 합니다. 교회는 바빠서 못 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 꽤 신경을 써 읽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빈도를 줄여 나중에는 먼지가 쌓이게 만듭니다.

한 때 교회에 잘 다니다가 오래 안 다니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 성경 안 봅니다. 기도도 물론 안 하지요. 성경을 안 보니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여럿 보았습니다만 그거 대개는 거짓말입니다. 마귀한테 속아 하는 말입니다. 몇 년이 되도록 교회에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그건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 말씀도 그 사람 안에 없습니다.

지금 남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지요? 난 매주 교회에 잘 나오고 있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야 백 배 낫지요. 하지만 내가 과연 주 예수 안에 있는지 그건 말씀을 바탕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일 설교 한 번 들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는 자리에서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까? 성경 한 번 챙겨 읽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도전할 때 무슨 힘으로 싸워 이기겠습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올해 구약성경 통독을 해서 성경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통독도 좋고 정독도 좋습니다. 잘 하신 분들은 아마 말씀의 힘을 삶에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제대로 못 했다 싶은 분들도 많지요? 실망하실 것 없습니다. 올해야 좀 아쉽지만 내년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경 암송을 할 계획입니다. 차분하게 앉아 입을 틈이 없는 분들도 매주 한 구절씩 또 매달 긴 본문을 암송 본문으로 삼아 읽고 또 읽으면서 외면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이야기만 나오면 숨고 싶으시지요? 그런데도 말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기쁨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올해는 좀 느슨하게 시작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기쁨을 제대로 좀 누리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어 볼 생각입니다. 기대도 하시고 각오도 단단히 하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 말씀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도 미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권수경 목사)